

완도군, '여름의 휴식' 해양치유 프로그램 성료



완도군에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10일간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요리 교실을 배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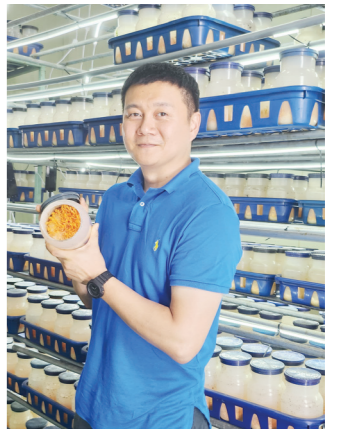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서 완도 특화 자원 활용 요리 교실 등 총 662명 체험 기회

'여름의 휴식'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주민과 관광객 등 총 662명이 참여했으며 1일 3회,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치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노르딕워킹과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 해양문화치유센터의 후각동(비누·캔들 만들기), 축각동(풍경 만들기), 미각동(완도 특화 자원 활용 요리 교실)에서 문화치유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해수욕장에 물놀이를 하러 왔다가 뜻밖에 좋은 프로그램을 접하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었다", "문화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든 캔들과 비누 향이 너무 좋고 특히 바다를 형상화한 비누가 예뻐 선물을 받고 가는 기분이야", "하루에 다양한 문화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서 힐링했다" 등 다양한 소감을 남겼다. 앞으로 해양문화치유 프로그램은 9월 17일까지 주말마다 운영하고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하면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양기후·해양문화치유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운영된다. 해양문화치유 프로그램 문의는 해양문화치유센터(061-553-8009)로 하면 된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양치유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 증진 및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새로운 '동충하초' 배양 생산

장흥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인 버섯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버섯종균분양센터를 설립하여 버섯종균 생산과 공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찾아오는 장흥군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다양한 분야에서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가운데 차주훈 씨(37세)는 장흥군에서 다양한 버섯을 재배하며 아버지 뒤를 이어 버섯종균분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장흥군 청년농업인이다. 차주훈 씨와 농업기술센터의 인연은 2018년 청년사범 양성 공모사업부터 시작되어 버섯산업 발전과 기반 확립에 큰 도움을 주며 시작됐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위탁하여 운영되는 버섯종균분양센터에서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버섯종균 생산을 비롯한 다양한 버섯을 직접 재배·생산하고 있다. 운영을 전담하는 차대표의 전공 분야인 미생물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기능성 버섯 배양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드디어 현미와 다양한 단백질원을 포자 현탁액을 점종해 배양한 새로운 '동충하초' 배양에 성공했다. 흔히 곤충에서 자란다고 알려진 동충하초는 기능성 지표물질인 코디세핀을 비롯한 여러 유효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항암, 항당뇨, 대사질환 개선, 항바이러스 등 다양한 약리 활성이 확인됐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충하초'는 생산뿐만 아닌 판매에 있어서도 전망이 매우 밝다. 버섯종균분양센터에서 생산되는 동충하초는 장흥군 바이오식품산업단지에서 위치한 데이앤 바이오(대표 김승주)에서 1차 가공이 이루어지며 그 산물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로 납품되고 있다.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많은 버섯 재배농가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흥군 버섯산업의 발전을 위해 버섯종균분양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변화하는 시장마케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산업 발전에 앞서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장흥군 버섯 재배 농가에 이전하여 동충하초가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되는 버섯 산업시장의 활성화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납품을 통해 장흥군 버섯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차주훈 씨와 농업기술센터의 인연은 2018년 청년사범 양성 공모사업부터 시작되어 버섯산업 발전과 기반 확립에 큰 도움을 주며 시작됐다. 사진은 차주훈 씨가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해남군립도서관 '사이보그가 되다' 김원영 작가와의 만남

다음달 7일 올해의 책 작가 초청, 독자와의 대담 나뉨

해남군립도서관은 9월 7일 해남 올해의 책 '사이보그가 되다'의 공동저자 김원영 작가와의 만남을 갖는다. 김원영 작가는 골형성부전증을 겪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으로 변호사이자 배우로도 활동하며 장애인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저서로는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희망 대신 욕망' 등이 있다.

해남 올해의 책에 선정된 '사이보그가 되다'는 추천적 청각장애로 보청기를 사용하는 공상과학(SF) 소설가 김조업 작가와 휠체어를 타는 김원영 변호사가 각자 경험한 장애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인간의 융합에 대한 미래 사회의 도전과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특히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

닌 '불완전함'을 존중하는 기술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인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독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작가와의 만남은 오후 7시 해남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사전 공연으로 광주 소재 대학교의 교수 및 강사들로 구성된 재즈 그룹 리디안팩토리의 재즈 공연도 열린다. 참가 신청은 8월 22일부터 해남군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진도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문조사...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함께 운영

진도군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는 마을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확인하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문의는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061-540-3603.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최근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작년부터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조사는 오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위해 10월 31일(화)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진도=조성용기자

'강진맛집 여기어때?' 100선 제작 배포



강진군은 17일자로 강진의 맛집과 하반기 축제 일정, 여행코스를 소개하는 '강진맛집 여기어때?'라는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리플릿에는 총 100개의 맛집이 소개되며, 한정식 전문식당, 납도음 식거리인 마량면과 병영면의 마량

릿집, 병영 돼지불고기 등 16가지의 음식 분야별로 분류돼 있으며, 업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영업시간, 메뉴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리플릿은 각종 축제, 행사 시 강진을 알리는 데 이용될 예정으로 관광안내소, 공공기관, 관광호텔 등에 배부하고 주요 관광지, 푸소체험농가 등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비치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서 "맛집 홍보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